

▶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17' 전... 청년작가 2명의 작품 선봬

# 정면에서 파악한 낮선 시선

-강성은 '플라스틱 물결' -

그리고...

# 미소에 감춰진 슬픈 감정 표현

-이기립 '페이스 시리즈' -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지역의 청년작가들을 전시를 통해 지원하는 '전북청년2017' 전을 연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성은(한국화), 이기립(회화) 청년작가를 소개한다.

미술관은 이들 작가들이 작품관을 드러내고 기량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작품재료비(1인당 200만원씩), 작품구입, 창작스튜디오 제공 등을 지원했다. 또 본 전시에선 200여 평 상당의 본관 2전시실과 4전시실을 미술가에게 각각 마련해 주었다.

강성은 작가는 낮선 집이나 어두운 밤의 질감, 그리고 숲의 외관을 정면에서 탐구한 작업들을 선보여 왔다. 그의 시선에 잡힌 대상과 장소는 간결하고 독특한 질감으로 재구성됐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면에서 파악한 낮선 시선에는 일순간 긴장감마저 감돈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간의 작품을 총 망라하면서도 새롭게 시도한 '플라스틱 물결(Plastic waves)' 작품도 선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연필·목탄드로잉·유화 작품과는 다른 비닐 위에 검은 테이프로 질기고 까만 물결을 표현한 신작. 가로 2m30cm, 세로 1m70cm의 커다란 검은 플라스틱 물결 화면에는 작가 고유의 독특한 시선과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정해은 기자

이기립 작가는 미소 이면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슬픈 감정을 작가만의 독특한 언어로 표현해 왔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얼굴에 담아내는 '페이스(Face) 시리즈'를 2011년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 작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슬픈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오일파스텔이나 스크래치 기법 등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재료를 선택한다. 오일파스텔을 사용한 작품에는 무게감이 실리고, 날카로운 직선을 수차례 덧칠하는 과정 속에서 난해한 선과 색감들이 뒤엉켜 나타나는 스크래치 기법의 작품에선 삶속에서 미처 표출되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증폭돼 나타난다. 이번 전시와 더불어 강성은 작가는 올 7~8월 대안 뽀뿌커튼스튜디오 행을 결정지었다.

'전북청년2017'전은 오는 7월 2일까지.

한편 같은 기간 '전북도립미술관 소장 명품 70선'도 함께 열린다. 이는 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2016년까지 13년 동안 수집한 소장품 총 1,527점 중에서 엄선한 70명의 미술가 작품 70점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전시이다. 수집한 작품들 가운데 전북의 지역성을 반영한 작품을 비롯해 한 국미술과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은 본관 3전시실과 5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31일 대형 국악극 '대청여관' 순창향토회관서

순창군이 군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오후 2시 순창향토회관에서 대형 국악극 '대청여관'을 진행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보기 쉽지 않은 대형 국악극으로 음악과 연극이 합해진 형태다.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온 국악인들의 고난과 사랑이야기로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의 멜로디를 선사할 예정이며, 진도아리랑, 오빠는 풍악쟁이, 흥타령, 날리리맘보, 배사메무초, 그날이 오면 등 노년층에는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젊은 세대엔 국악에 대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들은 행사 당일 현장 오후 1시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공연 시작 전 20분까지 입장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접근하기 힘든 전통음악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전통예술원 모악, 27일부터 9월까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시설공연

(사)전통예술원 모악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2017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시설공연이 27일 열린다.

공연은 '도청으로 떠나는 국악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총 22회에 걸쳐 열리는 올해 공연은 도청에서의 본공연(18회)과 6월 2일 그린웨이 환경축제 및 7월 28일 휴가철 맞이해 찾아가는 공연, 6월 26·28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축하하는 특별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7일 개막공연은 내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라남도 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무대로 조통달 명창과 날마무용단, 타악그룹 열우가 참여하여 다양한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해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실험적이고 젊어진 무대를 마련했다. 공연은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신진예술인과 신규 참여단체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통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장했다.

공연은 명인들의 무대인 '백세일로', 기성단체들의 농익은 무대 '오감만족', 신진예술인들의 '정출어람', 장르를 뛰어넘는 '무한도전' 등 매주 테마를 달리해 전통과 대중화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열어 간다.

부대행사로는 부채꾸미기, 보석 십자수수첩 만들기 등 공예체험과 넓어진 도청 야외공연장 공간을 이용한 전통놀이 체험이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

## 완주문화재단 누에, '오픈하우스, 뽕주르 데이' 개최

27일 오전 10시부터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도예·섬유·금속·목공 등 공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복합 문화예술의 장 '오픈하우스, 뽕주르 데이'를 27일 연다.



'오픈하우스, 뽕주르 데이'는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 행사명은 (구)호남잠사였던 누에(nue)의 잠소성과 프랑스어 인사인 '뽕주르(bonjour)'를 엮어 누에(nue)를 찾는 방문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아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예체험 및 공방 놀이체험, 전시, 공연, 주민과 함께하는 한복 리폼 패션쇼, 팝업파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공방체험 및 놀이체험'은 컵·접시 만들기(도예)를 비롯하여 염색(섬유), 철보와 금속공예(금속), 목필갑(목공예)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누에(nue)의 각 공예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후 2시 야외무대에서 '김성수 모던 재즈 트리오', '하요일 11시', '동그란',

'살롱 드 보통', '오몽실' 등이 연주곡을 들려준다.

오후 8시부터 펼쳐지는 한복 리폼 패션쇼 '새웃줄게~ 현우다오~'는 한복을 수집하고 리폼하는 프로그램. 이는 새로운 한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누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향성을 상징화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여 패션쇼에 담긴 의미와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카이브 및 현재 아티스트 레지던스 '예술+공방 스튜디오'에 참가하고 있는 작가 2인(김병관·조미형)의 전시도 열린다. /정해은 기자



## 군산시, 문화예술 블로그기자단 창단식 개최

"보다 전문적인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군산민의 생생한 문화예술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e-Biz센터(센터장 임용택교수)와 손을 잡고 군산대에서 '군산시 문화예술블로그기자단'의 창단식을 가지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시 문화예술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된 블로그기자단은 다양한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SNS 등)의 접근성·확산력을 활용하여 군산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지역자산에 대한 소식

발굴, 현장취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대의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피드백을 거쳐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그 규모와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블로그기자단의 지도를 맡은 임용택 교수는 "앞으로 군산시와 함께 블로그기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지역소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 5월 28일 (일)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전화: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